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종배·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천도안·하영태·나우누리 PSPD 유·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pspd.org / 인터넷: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과학, 보건의료, NGO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담당: 한재각: 723-4255 hancl@pspd.org)
제 목 인간배아복제, '14일론' 집중 토론회 안내
날 짜 2000. 6. 22.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서

인간배아복제, '14일론'을 해부한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6월 29일 오후 3시, 명동 유네스코회관 10층 강당

1.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환석 국민대 교수)는 6월 2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명동 유네스코회관 10층 강당에서 인간배아복제 허용·금지 여부의 핵심적인 논쟁인 소위 '14일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소위 '14일론'이란?

체세포복제기술을 통해 인간세포를 복제를 시도할 경우, 척추가 될 원시선(primitive streak)이 출현하기 이전인 14일까지는 인간개체로 볼 수 없는 세포덩어리이기 때문에 복제실험 및 그 산물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

2. '14일론'은 15대 국회에서 상정되었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과 '인간복제금지법안' 등과 같이 인간복제를 금지하려는 법제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사항이다. 체세포복제기술 분야에서 연구하는 과학자·의학자들은 의학적·경제적 이점을 내세워 '14일론'을 옹호하고 있으며, 종교·윤리학계의 인사들은 대체로 이에 반대하고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16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시도될 생명공학 윤리 분야의 법 제정을 위해서 '14일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3. 이번 토론회에는 '14일론'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들이 참여하여 집중적으로 토론한다. 발표자로는 이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박세필 마리아블 임클리닉 기초의학연구소장, 임종식 생명의료윤리학 박사(성균관대 철학과), 정규원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며, 국회 의원, 관련 부처 정책담당자, 관련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는 02-723-4255(한재각). 끝.